

동국대 경주캠 '외국인 존' 설치 세계로 점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00여명의 유학생이 생활하는 '외국인존(Zone)' 설립이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는 최근 불교국가출신 우수 유학생을 선발해 '외국인존'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계화전략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빠르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존 설립 프로그램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네팔 몽고 등 10여개 불교국가의 종단 및 사찰과 자매결연해 매년 10~20명씩 유학생들을 추천받아 5년간 교육하는 과정으로 꾸며진다.

첫해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4년간은

불교국가 출신 유학생 100여명 유치

내년부터... 방학때 사찰생활로 불교이해 문화·어학·국제적 감각 공유 기대

학부에 입학해 원하는 전공을 선택케 한다는 것. 유학생들에게는 학비와 체류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 국내 각 종단과 교구본사 등과도 1:1 자매결연을 추진해 방학

동안에는 사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유학생들이 졸업할 경우 불교국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의뢰해 모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이들이 생활하는 외국인존에는 서구의 유학생들도 유치한 뒤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어학을 비롯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아 있으나, 지방대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종합학교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절실한 만큼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가르침 얻고 올바른 불자 되길...

대구·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포교 활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동화사가 덕원중학교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동화사 템플스테이' 첫 단을 9월 11일 열었다.

9월 11~12일 동화사에서 보낸 하루밤은 학생들에게 짧지만 특별한 경험이었다. 친구들과 산사에서 머물며 발우공양을 배우고, 동화사 팔공다회 황명화 회장이 직접 우린 차를 음미하며 스님의 법문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년 구분 없이 6개조로 나누는 조별활동시간에는 동화사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 발표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얻고, 참회발원을 한줄 쓰고 3번 절을 하면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도 가졌다.

덕원중학교 파라미타 부장 정민창(덕원 중 3년) 군은 "파라미타 전국수련회에 참가할 때는 사람 수도 많고 복잡해 잘 몰랐는데, 우리학교만 따로 템플스테이를 하니 스님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주말도 반납하며 템플스테이를 지도한 신연섭 대구교사불자회 회장은 "학생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올바른 불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보람"이라고 밝혔다.



9월 11일 동화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연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차를 마시기 전 합창의 예를 올리고 있다.

한편 파라미타 부산지회는 9월 12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내 학생교육문화관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회원들을 위한 청소년예술회를 열었다. 파라미타 창립 8주년 기념 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예술회에는 파라미타 회원들이 직접 준비해 무대에 올린 승무, 부채춤, 북, 마술 등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 총재 대상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을 비롯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8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매주 화요일 고우 스님 만나세요"



고우 스님의 '선요' 특강을 듣기위해 전국에서 모인 불자 200여명이 불교TV 대구지사 무상사 방담을 가득 메웠다.

대구 불교TV 12월 21일까지 '선요' 통한 선의 진수 특강

대구에서 선가의 지침서인 '선요'를 통해 선의 진수를 소개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TV 대구지사 선불교대학 무상사가 '내가 부처'라는 화두로 널리 알려진 선원장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을 초청해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14회에 걸쳐 '선요' 특강 법회를 개최한다.

'선요' 특강 첫날은 불교TV회장 성우 스님, 동화사 부주지 진담 스님을 비롯해 2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회의 열기를 더했다.

고우 스님은 먼저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종일관 행복을 살아가는 길,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법문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스님은 "부처님이 찾아 나선 행복은 외적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매일 매일 좋은 날이며, 하는 일마다 행복한, 생로병사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법회에 빠짐없이 온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참선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닦고 깨달음을 빌리지 않는 것으로 종지를 삼는다"는 구절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 보고 듣고 하는 귀한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상 모든 것은 연기로 존재하니 자유자재하고 비교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라고 법문했다.

고우 스님은 1968년부터 69년까지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종합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지고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이 시대 대표적인 선원장 스님으로 불화 각화사 서암에 주석하고 있다.

연화사 중심 불교테마공원 조성

통영시, 성지로 집중 육성

통영시가 연화도를 불교성지로 집중 육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연화도는 9월 13일 '통영시 중·장기발전계획' 중 문화관광분야에 오는 2010년까지 육지연 연화도의 연화사를 중심으로 '불교테마공원'과 '해양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전국 불자들의 순례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화사가 최근 대웅전, 요사채, 진신사리탑 등 도량 조성해 전국 불자들의 순례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화사가 최근 대웅전, 요사채, 진신사리탑 등 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바다를 한눈에 보이는 곳에 해수관음상을 봉안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덕암 불사가 회향되면 연화도를 찾는 불자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화도 관광개발계획은 시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소장 박호포)에 의뢰해 수립한 것으로, 연화도 일대를 불교테마공원과 소평공원, 해양체험공간, 해양레포츠 공간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연화도의 불교테마공원 조성계획이 마무리되면 연화도가 전국적인 불교성지이면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배움·상생의 도량으로..."

대구 지장선원 만불보탑 낙성

대구 동구시장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이 팔공산 진인동 갖바위 인근에 육각 만불보탑 도량을 조성하고 9월 13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선원장 지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 도량을 넘어 나눔의 도량, 배움의 도량, 함께 하는 복지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지 240평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건립된 만불보탑은 지난 3월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육각 탑 모양으로 조성했다. 1층에 법당, 2층에 시민선방이 마련된 만불보탑의 8m 높이 외곽 지붕에는 13자의 대불 지장보살을 비롯해 5자의 6지장보살과 30cm의 1만 지장보살을 봉안할 예정이다.

한편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노인요양복지시설인 '붓다의 집' 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지공 스님은 '100만명이 동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1인 1지장 갖기 백만 지장보살 봉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님은 이 운동을 통해 적립된 복지 불사 기금을 살피 노인 요양원을 건립하는 데 출연할 방침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 성불사 중창 불사 회향



부산 성불사 중창 불사 회향법회에서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테이블을 커팅하고 있다.

분원중 부산 성불사주지 혜원가 9월 12일 중창 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지역민을 위한 포교, 수행도량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성불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을 사용해오던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 안에 대웅전, 독성각, 관음전, 삼성각, 공양실, 요사채 등을 고루 갖춘 도량으로 거듭났다. 도심 사찰로서의 포교 기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이번 불사 회향을 계기로 성불사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성불사 주지 혜원 스님은 "성불사가 사하구민의 기도 정진 도량으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의 수행 정진을 이끌어가는 포교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희불교복지대학 입학식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겠다는 열의를 세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 관음사주지 지행가 9월 14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50여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시작했다. 한희불교 복지대학 수강생들은 3개월동안 생명의 의미와 가치, 말기 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치매환자 관리, 경락, 심신 이완요법 등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수료 후에는 각 병원과 연계 자원봉사 활동이나 간병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051)294-9300

천미희 기자

2004 실버일자리 박람회 열려

불교사회복지회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대구2004실버일자리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9월 13일 건원타워 네거리에 박람회 사무국을 열었다.

사무국 개회식은 지도 스님(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을 비롯한 시정관계자, 관련 복지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0월 19~20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구 2004 실버일자리박람회에서 1500여명의 대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배지선 기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고승초청 선·서화전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한 알의 씨앗이 복밭에 떨어져 만 알의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불가의 스님네들은 먹과 붓을 가까이 하여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선·서화 작품을 가까이 해 오셨습니다. 산사의 작은 방에서 세속을 떠난 옛 선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고승 초청 선·서화전"이 노인 복지에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자, 불교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뜻이리라 확신하며,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승들의 주옥같은 작품으로 여유 있는 가을 맛오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9월
통도사 자비원 대표이사 현 문 합장

초청스님

- 월해대종사(전.조계종 종정)
- 원명큰스님(비로암)
- 종광큰스님
- 수안큰스님(축서암)

· 성파큰스님(서운암)

· 석정큰스님(단청 인간문화재)

· 상우큰스님(시탑전)

· 동원큰스님(사명암)

· 원산큰스님(백련암)

· 청운큰스님(취운암)

· 중선큰스님(수도암)

· 관우큰스님(무량암)

· 무주스님(선방수좌)

-무 순-

부산 전시 일시: 2004. 10. 4(월) ~ 10. 8(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국제신문사 제1전시실(4층)

울산 전시 일시: 2004. 10. 11(월) ~ 10. 15(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불보신문 사옥(1층)

통도사 전시 일시: 2004. 10. 21(목) ~ 10. 22(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통도사 경내

주최: 영축총림 통도사 **주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 후원: 통도사 신도회, 지장회, 관음회, 사리탑봉찬회, 통도사자비원후원회,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불보신문 ■ 문의: 055)383-3999, 381-3999, 6500